

종묘와 종묘대제

Jong-Myo Shine and its great religious cere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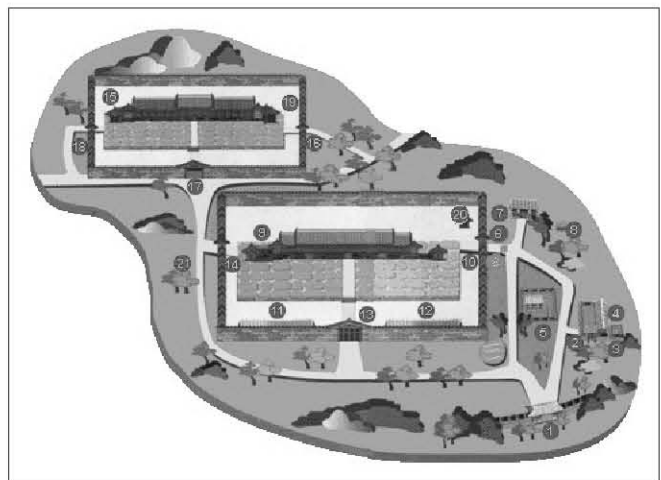
이종호 / 정회원, 시원 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KIRA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졸업
- 노원구건축사회 회장
- 서울건축사신문 편집위원장
- (사)전주리씨대동종약원 총무위원

주요작품
• 노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당선

그리스에 아테네신전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종묘가 있다. 종묘에서는 아직도 옛날 방식의 제례가 계속되고 있어 더욱 가치를 발한다.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는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옮기고, 왕궁의 동쪽에 종묘를 건립하고 서쪽에 사직단(社稷壇)을 세웠다.

- | | | |
|----------|----------|-----------|
| 1. 정문 | 8. 재정 | 15. 영녕전 |
| 2. 망묘루 | 9. 정전 | 16. 영녕전동문 |
| 3. 공민왕신당 | 10. 정전동문 | 17. 영녕전남문 |
| 4. 향대청 | 11. 칠사당 | 18. 영녕전서문 |
| 5. 어숙실 | 12. 공신당 | 19. 제기고 |
| 6. 판위대 | 13. 정전남문 | 20. 수복방 |
| 7. 전사청 | 14. 정전서문 | 21. 악공청 |





종묘(宗廟)

현재의 종묘는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정전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정전 건물은 태조 3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이듬해 9월에 완공되었고, 영녕전은 세종대왕 때 건축되었다. 사적 제125호인 종묘는 유교의 검소한 기풍에 따라 건립된 건물로 서양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과도 다른 세계적으로 희귀한 건축유형으로 건축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제왕과 왕후, 배향 공신의 신위(神位), 칠사(七祀)에 제향을 올리는 엄숙하고 신성한 신전이다. 종묘의 지형은 남북으로 긴 타원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세에 따라 계곡 쪽에 건물을 배치하고 주위는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쪽이 허(虛)하다고 보아 태조는 1398(태조7)년 종묘의 안쪽에 지당(池塘)을 만들었다. 종묘의 배치는 정전구역, 영녕전구역, 재궁(齋宮)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사진1. 종묘정문)

정전구역

정전은 영녕전과 함께 열성조의 신주를 모신 신전으로 한 동에 여러 신실(神室)을 마련한 동당이실로 현재 19신실에 대왕 19위와 왕비 30위 모두 49위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있다.

그리고 좌우에 협실 각 3칸, 동서 월랑(月廊) 5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쪽의 길이가 70m이고, 좌우 협실과 월랑까지는 총 101m나

된다.

종묘는 동문, 공신당, 남신문, 칠사당, 서문을 연결하여 사방으로 담장을 쌓았다. 태묘의 남문인 남신문은 신로와 이어진 문이어서 부묘할 신주나, 축합과 향관, 종친 및 동반(東班: 문관이 출입하며, 서문은 단문으로 서반(西班: 무관이나 악사, 일무원(佾舞員)이 출입하는 문이다. 공신당(功臣堂)은 태묘의 하월대 아래 동쪽에 있는 16칸의 건물로 전면 중앙부에 판문(板門)이 있다. 역대제왕의 공신 83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하월대 아래 서쪽에는 정면 3칸 측면 단칸의 칠사당(七祀堂)이 있는데, 여기는 판문 서쪽으로부터 사명(司命), 사호(司戶), 사조(司竈), 중류(中霽), 국문(國門), 공려(公厲), 국행(國行)지신 등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일곱 신을 모시고, 국가 안위를 위하여 제사 지내고 있다.(사진2)

영녕전구역

종묘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영녕전은 중국 송(宋)나라 제도를 따라 영건된 별묘(別廟)로 태묘에 부묘(祔廟)하였다가 친진(親盡)하면 이곳에 조천(祔遷)하므로 조묘(祔廟)라고도 한다.

영녕전은 중앙의 4조신주(四祖神主)를 모신 4칸은 정전과 높이와 형태를 같이 했고, 동익실(東翼室)과 서익실(西翼室)은 중앙의 4칸보다 낮게 하여 조천위를 봉안하며, 단종은 1698(숙종 24)년 복위되면서 곧바로 영녕전에 봉안(奉安)되었다. 협실 양 끝의 앞에 동서월랑 5칸씩을 덧붙였다.

신실 배열은 중앙 4칸에 좌측(서쪽)부터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순으로 모셨고, 서익실에 5실부터 10실이 있고, 동익실에 11실에서 16실이 있어, 현재 의민황태자와 비위(妣位) 이씨(李氏)를 포함하여 왕 16위와 왕비 18위, 모두 34위가 봉안되어 있다.(사진3)

재궁구역

재궁은 5칸으로 왕이 목욕재계하고 의복을 정제하며 세자와 함께 제향 모실 준비를 하던 곳이다. 4각의 담장이 둘러 있는데 정문, 동협문, 서협문이 있고, 뜰 북쪽에 재궁, 서쪽에 어목욕청(御沐浴廳), 동쪽에 세자재실이 있다.

종묘의 정문을 들어서면 방형의 지당(池塘)이 있는데 못 가운데 둥근 섬이 있고, 향나무를 심었다.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 :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사상으로 우주를 의미한 것이다. 이 연못 동쪽으로는 향대청과 망묘루 및 공민왕 신당이 일랑(一廊)으로 이루어져 있다.

향대청(香大廳)은 향축(香祝)과 폐(幣), 그리고 제관들의 제복이 보관되어 있으며, 또한 제향에 봉무할 제관들이 대기하던 곳이고, 그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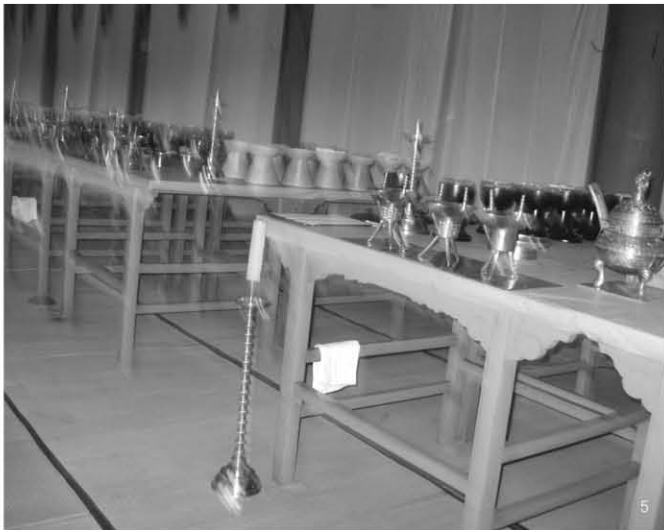
쪽에는 제사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대기하던 집사청(執事廳)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건물과 시설이 있는데 생략하기로 한다.

종묘대제(宗廟大祭)

이곳에서 실행되는 종묘대제는 국가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고 왕실의 조상에 대한 효를 제례로 구현한 조선왕조의 가장 큰 의례이다. 종묘대제는 최고의 품격을 갖추고 유교절차에 따라 거행되는 왕실의례로서 장엄하고 정제된 아름다움은 동양적 종합예술의 정수이며 6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이다.

또한 종묘대제는 유교사회의 다섯 가지 의례(五禮)인 길례(吉禮), 흉례(凶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가례(嘉禮) 중 임금이 친히 받드는 존엄한 길례였으며, 이를 효 실천의 근본으로 삼아 조상에 대한 숭배를 인간의 도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법도로 여겼으며 민족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음악, 노래, 춤과 함께 신을 맞이하는 영신을 시작으로 10여 가지



의 절차로 진행되는 화려한 전통복식, 의례도구들과 함께 우리 전통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종묘와 종묘대제는 종묘제례악(사진4)과 더불어 유네스코에서 그 문화가치를 인정받아 종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종묘대제와 제례악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어 세계인과 우리가 함께 보존하고 있다.

이제 세계인들의 눈과 마음에 보이는 종묘와 종묘대제는 한국의 역사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행사가 되었다. 따라서 종묘대제는 조선왕조의 역사문화 전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종묘에서 제례를 재현하여 그 내면에 담겨있는 역사의 향기를 새롭게 하는 마당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례는 다른 제사 의식과 같이 유고식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크게 보아 신(神)을 맞는 절차로 신관례(영신과 전폐)가 있고, 신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인 천조례(진찬, 초헌, 아헌, 종헌, 음복)가 있으며, 신을 보내 드리는 절차에는 철변두, 송신, 망료가 있다. (사진5. 재실내부)

종묘대제는 본래 사맹식(四孟朔)이라고 하여 춘추추동 사계절의 첫 달과 납월(臘月)이라 하여 12월에 날을 잡아 1년에 다섯 번 지내고, 영녕전의 제례는 봄가을로 1년에 두 번 지내었으나 지금은 양력 5월(첫째주 일요일)에 지낸다. (社)全州李氏大同宗約院에서 행사를 주관해오다 2006년부터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국제문화행사로 확대하여 치르고 있다.

종묘대제 참여

필자는 작년과 금년 두 차례에 걸쳐 종묘대제에 제관 및 봉행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제관으로 위촉되면 3일 전부터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목욕재계한 다음 제향에 임한다. 향대청에서 제관복으로 갈아입고 홀(笏)을 양손에 잡는다. 이것은 잡념 없이 앞만 바라보도록 함이다.

오전 10시에 봉행되는 영녕전 제향에 이어 오후 1시부터 정전에서 종묘대제가 봉행되는데 1실 제관부터 19실까지 순서대로 동문을 통과하여 입장한다.(사진6)



집례(集禮)의 지시에 따라 국공사배를 한 다음 각 제실로 가서 봉무요령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제례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워 하루 전에 습의(習儀)를 하였어도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필자는 태종대왕과 원경왕후를 모시는 제2실에 배정되어 태조대왕을 모시는 제1실과 함께 각 방송사 카메라의 집중조명을 받아 더욱 긴장되었다.(사진7. 복무중인 필자)

신관례에 이어 초헌례를 올리며 제1실의 초헌관은 왕이 맡는데 지금은 전주리씨대동종약원 이사장이나 황손(皇孫)이 맡기도 한다. 이때 제관들은 물론 참반원 모두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동쪽으로) 대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아헌례와 종헌례도 초헌례와 같은 절차(단 독축이 없다)로 진행되는데 음복례, 망료례를 마지막으로 모든 의식이 끝난다.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사진8.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왼쪽 끝이 필자)

전에는 제관 자격이 왕손인 전주리씨 후손들에게 주어졌지만 지금은 왕비 가문의 성씨(안동김씨, 파평윤씨 등)자손들에게도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별도 연락을 바란다. ㉡